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41호【루계 제2457호】

주체106
(2017)년 10월
7일
토요일
음력 8월 18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옥9》호, 《밭벼24》호, 수수강냉이를 비롯한 농장에서 육성해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신 다음 새로 건설한 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일떠선 연구소는 연건축면적이 3, 890여㎡이고 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생물공학실, 배양실, 원종보관실, 과학토론회실,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연구사들의 연구사업과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침실, 식당, 운동실, 목욕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도 구색이 맞게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층으로 된 연구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첨단농업과학연구기지답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설계와 시공도 만점이며 흠잡을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 농장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 벼, 강냉이, 사탕수수, 목화, 사과, 복숭아, 포도, 대추 등 갖가지 농작물들을 전시해놓았는데 정말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자면 일군들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및 육성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종자육종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논벼, 밭벼, 수수강냉이, 검은강냉이, 사탕갈 등을 보시고 만족해하시면서 농장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연구하는것과 함께 온 나라에 널리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남새작물밭에 들어서시여 생산성과 영양가가 놀라울 정도로 높은 남새작물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인민들과 군인들의 남새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하시면서 몸소 남새작물의 이름을 단백질이 많다는 의미에서 《단백초》라고 명명해주시였다.

《단백초》는 한번 심어 여러번 베여 수확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흙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경작할수 있는 아주 좋은 남새작물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널리 퍼쳐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물결치는 밭벼포전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올해 《밭벼24》호를 파종한 후 60여일간 심한 가물이 들었지만 가혹한 조건에서도 풍작을 거둘수 있게 되였는데 가물견딜성이 매우 강한 물절약형의 다수확벼품종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수확품종인 《평옥9》호를 심은 강냉이밭들에 팔뚝같은 이삭들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전작으로 밀을 심고 후작으로 강냉이를 심으면 정보당 13～15t의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는데 두벌농사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하시였다.

농장에 새로 배속된 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이 부족한 논과 밭들로 이루어진 이곳 농장에서 가물이 지속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어 정보당수확고를 이전에 비해 4배이상 끌어올림으로써 계획을 못하던 고장이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고장으로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고 수확량이 높은 농작물들을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할수 있은 비결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려는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당중앙의 시험농장이 역시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116호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재배함으로써 농사에서 종자가 기본이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년이 든 농장벌에 서있노라니 과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는 구절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하다고, 신심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레이는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다수확품종의 종자육종과 육성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조선로동당

이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많은 당들이 존재하고있다. 명칭도 각이하고 추구하는 리념도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인것은 자기 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당이고 자기들이 집권하면 국민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 달콤한 공약보따리들을 내흔들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당들을 쳐다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고 나중에 대중의 환멸과 버림을 받아 존재를 마치는 당들도 적지 않다.

세상에 당은 많아도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심장의 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고 운명도 미래도 다 그 품에 맡기고 따르는 당은 오직 하나뿐이니 그것이 바로 붉은기에 마치와 낫과 붓을 당마크로 새긴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되여 오늘에 이르는 70여년간 애국애족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공화국에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노래가 특별히 많다.

《그대는 나의 생명》, 《당은 나의 어머니》, 《심장아 말해다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을 노래하노라》,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가사와 곡이 나오고 전인민적인 가요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당이며 로동당의 정치가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기때문이다. 어머니가 없다면 태여나 성장할수도, 운명의 살뜰한 보호의 손길도 없듯이 로동당이 없으면 나와 우리 가정, 모두의 자주적존엄과 행복, 아름다운 미래도 없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는 신성한 그 이름으로 부르며 안기고 따르는것이다.

어머니의 손길은 한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라는 성스럽고 크나큰 《어머니》는 온 나라 인민들을 다 보살펴주고 힘겨울수록 더 따뜻이 어루만져주고 앞길을 곧추 가라며 힘과 용기도 북돋아준다.

이런 고마운 당, 참된 운명의 보호자를 왜 온 나라 인민들이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받들고 따르지 않겠는가.

당의 모습은 다름아닌 그 당을 이끄는 령도자의 모습이다.

조선로동당이 어머니당의 모습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는것은 령도자가 위대하기때문이다.

해방된 이 땅우에 근로인민을 위한 진정한 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인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근로하는 인민의 리익과 념원실현을 당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전과정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정치리념으로 삼으신 그이의 인덕정치를 자기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마음속에 애국애족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뿌리내리여 천만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것이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고 하나의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신 위대한 주석님이시다.

당의 운명과 전도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석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모시여 어머니당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주체100(2011)년 12월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인 주체86(1997)년 10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것은 당의 발전과 나라와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또 하나의 뜻깊은 리정표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이끄시였다.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수많은 강령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도록 깨우쳐주고 이끄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축원의 인사를 보내는 뜻깊은 생신날에도 오로지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신 장군님이시였다. 어느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일군들은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중의 어머니로서의 구실을 해야 한다, 일군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밥그릇에 마음을 쓰듯 정성을 쏟아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활동의 구호로 되고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며 투쟁하는 당이라고 하시며 당을 철두철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활동하며 투쟁하는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령도사가 어리여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진두에는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수년간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고 인민사랑의 현지지도를 끝없이 이어가시였다. 도처에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려명거리를 비롯한 인민사랑의 멋진 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워주시고 그것을 보아주실 때에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너무 기쁘시여 온 세상이 환해지도록 웃으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늘 말씀하군 하신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너무도 크고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서도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등 인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90여차에 걸쳐 언급하시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것이다. 올해 력사적인 신년사에서도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다.

그이에게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것은 가장 선차적이고도 중대한 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세인을 놀래우며 완성단계에 이른 국가핵무력도 나라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더 활짝 꽃피워주기 위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 나는 그저 인민의 믿음이면 된다. …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령도자와 당, 인민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은 최대로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의 아침이 밝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경축 사진전람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 경축 사진전람회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이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다.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정으로 받드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의 나날들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전하는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전선동부 1211고지를 방어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혁명의 최전방에 서시여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숭엄한 화폭속에 보여주고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여있다.

개막식이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것 (18) ◎

년로자들을 보살펴주는 국가의 다심한 손길

지난 10월 1일은 국제로인의 날이였다.

1990년에 진행된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로인행동계획실시와 활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해마다 10월 1일을 맞으며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에 세계인구의 7%에 불과했던 65세이상의 로인수가 앞으로 10년후에는 15%이상, 2050년에는 21%이상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세계적인 년로자보호실태는 너무도 암담하다. 로인들은 《극심한 4중고》(병으로 인한 고통, 빈곤으로 인한 고생, 자녀들과의 관계단절로 인한 고독,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료함에 의한 고충)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있다.

남조선의 경우 로인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로인자살률과 빈곤률 세계 1위, 로인소득 최하위…

심지어 무의무탁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돌봐준다는 《복지시설》들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학대와 폭력의 란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이 세상에 로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남조선은 물론 국적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세계 도처의 년로자들속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탄식이고 울분에 찬 절규이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년로자우대정책이 있으며 그것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내세우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설날을 비롯한 명절날이면 아이들이 늙은이들을 먼저 찾아가 세배와 인사를 하고 상업봉사기관들에서 늙은이들을 위해 특별봉사를 하고있다.

이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싸워온 항일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조국번영을 위해 창조의 구슬땀들을 바친 공로있는 로인들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경과 우대를 받고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최하층인생으로 버림받고있는 무의무탁로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더욱 극진하다.

고독과 비관, 절망과 분노 등 다른 나라 로인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공화국의 년로자들에게서는 찾아볼수 없다. 그들은 누구나 생의 희열과 락관, 생기와 활력에 넘쳐있다.

올해의 국제로인의 날에도 공화국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날 평양시년로자들의 예술공연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람찬 생의 자욱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인생의 황혼기에도 참된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조국의 은덕에 격정을 금치 못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이날 평양에서뿐아니라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애국충정을 다해온 년로자들을 축하해주는 사업이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년로자들을 우대하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는것은 공화국의 오랜 국가적정책이다.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인 1946년 1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첫 양로원을 개설하였다.

당시 새 조국건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으나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특히 년로자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것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양로원을 개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48년 5월 어느날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양로원(당시)을 찾으시여 해방전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서러웠던 보양생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과 아픔을 따뜻이 녹여주시며 지난날에 나라가 없고 자식이 없다보니 고생이 많았겠다고,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린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의 년로자정책은 전시에조차 중단되지 않았다.

1950년대초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리신 지시들은 만사람을 감동케 한다.

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독신으로 된 로인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수수방관할수 없다. …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애육원과 초등학원, 양로원, 양생원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5년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발표하시고 앞선 세대 혁명가들과 공로자들에 대한 평가, 대우 등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속에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도 채택되여 그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법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해주게 되였다. 또한 년로자보호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공화국 내각과 각 도인민위원회들에 해당 책임일군들로 구성된 비상설년로자보호위원회가 조직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년로자들에 대한 다심한 사랑은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어지고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있다.

그이께서는 혁명선배들인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을 맞으며 전국의 전쟁로병대표들을 평양에 불러주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로병들을 조국을 지킨 은인,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라고 불러주시며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다른 나라같으면 몇푼의 퇴직금에 기대여 근근히 살아가거나 그마저 없으면 락엽신세인 전쟁참가자들이 공화국에서는 인생의 최절정에 올라서는 현실, 진정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오직 공화국에만 있는 현실이 아닐수 없다.

2015년 8월,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평양양로원을 찾으시여 정말 멋있다고, 보양생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그들의 건강장수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공화국인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진정 어린이들로부터 년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참다운 세상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김 춘 경

국제로인의 날을 기쁨속에 맞이하는 공화국의 년로자들

우리 옷, 우리 천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를 보고—

얼마전 평양에서는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의 수많은 조선옷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만든 각종 아름다운 조선옷들이 출품된 전시회장은 련일 참관자들로 흥성이였다.

기자도 참관자들의 물결에 실리여 전시회장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제일 눈길을 끌고 감동을 자아낸것은 《우리 옷, 우리 천》이라는 전시회의 주제였다.

우리 옷, 우리 천.

얼마나 듣기에도 좋고 흥취나는 조선옷전시회의 주제인가.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자기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와 풍속을 창조하고 옷도 우수한 자기 옷, 조선옷을 만들어 입고 생활해왔다. 조선옷의 아름다움과 우수함은 이루 다 표현할수 없다.

민족적전통을 살리고 발전풍부화시켜가는 공화국에서는 조선옷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온 나라의 관심속에 열리는 전국조선옷전시회도 벌써 열다섯번째로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갖가지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옷들은 공화국의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우리 천으로 지은 옷들이였다.

부드럽고 질기면서도 색갈과 문양도 고운 우리 천으로 만든 조선옷들이여서 더더욱 민족의 자부심과 정취를 불러일으켜주었다.

평양에 왔다가 조선옷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은 남포시에서 사는 김복희녀성은 얼마전 결혼식을 앞둔 딸자식을 위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생산한 비단이불을 마련했는데 오늘 조선옷전시회장에서 우리 천으로 만든 조선옷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결혼식옷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한 청년대학생은 밖에서는 제재를 한다, 압박을 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도 우리는 이렇게 전국조선옷전시회를 보란듯이 열고 우리 옷, 우리 천을 자랑하고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정말 힘이 솟는다고,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문명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결혼식옷과 일상적으로 입는 다양한 조선옷들이 출품된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특별히 끈것은 량강도 혜산시 편의봉사관리소 성후양복점 책임자 류나리녀성이 제작한 녀자두루마기였다.

그는 우리 녀성들은 예로부터 평상복우에 두루마기를 덧옷으로 입군 하였다고 하면서 녀자두루마기를 설계하면서 계절적특성에 맞게 천의 재질과 형식에서 보다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감을 주기 위해 새롭게 외투천을 조선옷설계에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조선옷의 고유한 징표인 동정과 고름을 명백하게 구분하여줌으로써 전통성을 강조하면서도 편리성과 현대적미감이 잘 반영된 녀자두루마기는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독특한 개성과 뛰여난 착상으로 전시회장을 장식한 조선옷들중에는 함경북도에서 사는 최정란녀성이 만든 옷도 있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딸과 함께 참가하였다. 제1차 조선옷전시회때부터 오늘까지 빠짐없이 전시회에 참가하고있는 그는 전시회에서 여러차례나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재능있는 조선옷전문가이다.

최정란과 그의 딸은 자기들이 만든 조선옷에 《도라지꽃》과 《사과꽃》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최정란은 소박하면서도 외유내강한 조선녀성들의 성격적특질을 《도라지꽃》에 반영하고싶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조선옷을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담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화려한 문양이나 진한 색대조보다도 흰색바탕에 저고리의 밑부분에서부터 서서히 퍼여오르는 자주빛을 깔아준 《도라지꽃》은 점점이 수놓아진 꽃잎들로 하여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감을 주었다. 그의 딸이 설계하고 제작한 《사과꽃》은 흰색천에 흰 사과꽃을 수놓은것으로 하여 소복단장을 한 조선녀성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게 한 옷이였다.

전시회에는 민족적정서가 짙게 풍기는 다양한 형태와 색갈의 조선바지 저고리들도 전시되여 청년들과 로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열다섯번째로 열린 전국조선옷전시회를 참관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더 잘 살리고 꽃피워나갈 애국의 일념들이 어리여있었다.

본사기자 강 류 성

단상 추석민심

추석은 우리 겨레가 전통적으로 쇠여오는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올해의 추석날에도 거리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를 하러 가는 시민들로 붐비였다.

이날은 온 가족, 친척이 모여앉는 날이기도 하다.

제례가 끝나면 모두가 모여 앉아 그동안의 안부로부터 시작하여 정세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간다.

이번 추석날에 어느 한 가족에게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다.

《우리 공장은 올해 년간계획을 10월중에 완수하게 되였네.》

《그거 정말 수고가 많구만.》

《그까짓 미국놈들이 제재소동을 벌려대도 끄떡없어.》

《하긴 뭐가 두려울게 있나? 우리한테야 대륙간탄도로케트가 있지, 수소탄이 있지… 그걸 빼앗으려고 놈들이 제재와 위협을 소란스럽게 떠들고있는데 자강력으로 보기좋게 후려갈겨야지.》

녀인네들도 이야기에 한몫 끼여들었다.

《이러구저러구 할것없이 우릴 〈완전파괴〉시키겠다는 미국놈들 목줄을 따서 제상에 올려놓아야 해요.》

《맞아요. 우리 녀성들과 아이들까지 겨냥하는 그 트럼프인지 뭔지 하는 살인미치광이를 그냥 놔두면 안돼요.》

이번에는 소학교 학생인듯 한 아이가 말하였다.

《난 요전날 운동회에서 트럼프놈을 죽탕쳐버렸어요.》

…

그들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계속되였다.

요즘은 뻐스안에서도, 지하전동차안에서도, 일터와 마을에서도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한 자랑과 긍지에 대한 이야기,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날뛰는 미제에 대한 증오가 넘치고있다.

이것이 바로 공화국의 민심이 아닌가.

공화국을 《완전파괴》하겠다고 망발을 쥐쳐댄 트럼프는 공화국인민들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

오직 폭탄의 힘과 살륙의 수자만을 계산하고있는 이 전쟁상인은 공화국인민들이 지닌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들의 존엄을 짓밟는 원쑤에 대한 불같은 증오에 대해 알수조차 없다.

승리는 조선의것이고 절멸은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것이다.

이런 신념을 안고사는 인민을 없애겠다는것은 제 죽을줄 모르고 불에 뛰여드는 부나비나 같다.

추석날에 비낀 민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현 승 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장

— 강 서 약 수 공 장 을 찾 아 서 —

오늘도 사람들은 나라의 곳곳을 달리는 약수운반용 자동차들을 흔히 볼수 있다.

예로부터 그 맛과 약효가 비할바없이 뛰여나 조선의 특산이라 부르는 강서약수를 싣고 달리는 자동차들이다.

얼마전 우리는 강서약수공장에 대한 취재의 길에 올랐다.

인민사랑으로 세워진 공장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이 인정되고 약효와 효능에 대해 널리 알려진 강서약수에 대하여 이런 유래가 전해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 강서땅의 한 농부가 어느날 논가까이에서 이상한 몸짓을 하고있는 학을 보게 되였다. 그 학은 다리를 절고있었는데 긴 부리로 땅을 파헤쳐 거기에 고이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상한 다리에 바르기도 하였다. 며칠을 두고 그러던 학이 날아간 후 농부는 학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 땅을 파보았다. 그랬더니 세찬 물줄기가 솟구치는것이였다. 농부는 그 물을 마시였는데 쇠비린내가 나면서 맛이 상쾌하였다. 그때부터 이 물을 즐겨 마신 농부의 건강이 아주 좋아지게 되였다.

그후 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강서약수가 오늘과 같이 유명해지게 되였다.

우리가 만난 공장지배인 림선화는 강서약수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이름난 약수로, 인민들이 즐겨마시는 약수로 되기까지에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6(1947)년 12월 7일 이곳을 몸소 찾아주시여 여기에 위장병전문료양소를 짓고 림상치료와 연구사업을 하며 용출량도 더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강서약수를 만성질병의 예방치료에 널리 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현대적인 료양소를 세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그 은정속에 강서약수를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약수공장 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던 1974년 3월 이곳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약수가 참 좋다고 하시면서 많은 약수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병약수의 상표를 《강서약수》로 하자며 친히 이름까지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들을 위해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다. 수년전 뜻하지 않게 약수샘줄기가 끊어졌을 때에는 우리 나라에 약수가 나오는 곳이 많지만 강서약수맛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연구집단을 보내주시여 강서약수가 변함없이 솟아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지난 6월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서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오늘도 멈출줄 모르고 새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는 약수의 용출을 보는 우리에게 책임기사 방철명은 이렇게 끌어올린 약수가 물과 가스로 분리되여 생산현장에 도착하게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충분한 려과와 가스포집공정 등을 거쳐 보다 깨끗하고 쩡한 맛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강서약수에는 탄산성분이 약수 1L당 0.4~0.45㎎이, 셀렌이 0.005㎎, 철이온이 13.3㎎, 이산화규소가 40.2㎎이 들어있다. 강서약수의 류달리 쩡한 맛도 여기에 기인되는것이다.

약산성인 강서약수는 위분비정상화, 장관의 운동, 흡수촉진, 리담, 리뇨, 대사촉진, 조혈작용이 있는것으로 하여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위수술후유증, 만성소대장염, 동맥경화증, 비만증, 2차성빈혈, 당뇨병, 뇨로결석증 등에 특효가 있는 약수로 알려져있다.

우리는 유리병의 세척과 가스포화, 약수주입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든 강서약수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고싶어 우리는 약수운반용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누구나 즐겨마시는 약수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과 양로원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단위들과 봉사기지들을 찾아 쉬임없이 달리는 약수운반용 자동차들에도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인수원 최남일은 말하였다.

이름난 강서약수가 어떻게 인민들에게 가닿게 되는지, 그 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싶어 우리는 약수운반용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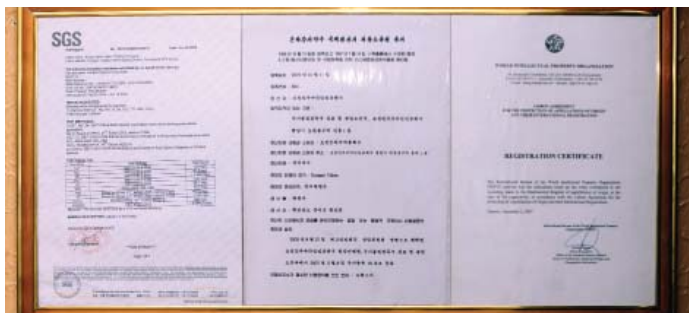
차안에서 최남일은 《출하된 약수들은 정연한 공급체계에 따라 전국각지로 운반되는데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들 그리고 급양 및 상업봉사단위들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는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아갈 때가 제일 즐겁다고, 시원한 약수를 달게 마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남다른 긍지를 느끼군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강서약수를 즐겨마시고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게 되였다. 우리가 만난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사는 리옥희 녀성은 어려서부터 소화기질병이 있어 고생이 많았는데 강서약수를 마시면서 병이 뚝 떨어졌다고, 이런 좋은 약수를 정상적으로 마실수 있도록 정연한 공급체계를 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일을 더 많이 하는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예로부터 맛이 좋고 병치료 효능이 뛰여난것으로 하여 지금도 사람들이 너도나도 즐겨 찾는 강서약수.

비단 그 맛과 치료효능만이 아닌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어 그 인기는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글 : 본사기자 강류성
사진 : 〃 동창현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며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물질문화적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제도입니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진정한 사회주의국가이다.

공화국에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이 국가건설의 근본리념,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 국가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과 모든 로선과 정책,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자기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우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있다.

공화국에서 국호, 군대와 보안기관 등 기관들의 이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과 여러가지 명예칭호들이 인민이라는 부름과 결부되여있는것도 국가정치제도의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근로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정치의 담당자로 내세우고 그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줄 때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급 주권기관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대표들을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체육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평범한 인민의 아들딸들이 조국을 떠받드는 일군이 되여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그대로 국가정책으로 되고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진행되여나간다.

모든것이 돈에 의하여 좌우지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상상할수도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으며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이것은 현실을 가리우고 저들의 통치체제의 반동성과 착취사회의 반인민적성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하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법이다.

인민들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국가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공화국에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다.

무엇을 하나 구상하고 설계하여도 언제나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철저한 립장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다고 하여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기치를 순간도 내린적이 없었고 언제나 인민생활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여기에 큰 힘을 넣었으며 아무리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때에도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여오고있다.

오늘도 공화국은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많은 경공업공장들과 축산기지, 수산기지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현대화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생산한 인민소비품들이 줄줄이 쏟아져나오고 철령아래 사과바다, 황금해의 력사가 자랑스럽게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공화국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꽃피우고 지켜주는 사회주의강국이다.

전쟁의 위험이 영원히 가셔진 푸른 하늘아래에서 자주적 존엄을 빛내이며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민들의 세기적인 리상이다.

인민의 이런 리상과 념원을 꽃피워주기 위해 공화국은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정의의 핵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위대한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고있다.

공화국의 존엄과 군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날마다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오늘 인민들은 허리띠를 조이며 핵무력강화의 험난한 생눈길을 헤쳐온것이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였고 만난을 과감히 헤쳐온 병진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것이였는가를 온넋으로 절감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이 일심단결을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강한 자주적대를 견지해나가는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힘있게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병진로선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일떠서 나라의 곳곳이 희한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사회주의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찬 화폭이다.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며 백전백승할것이다.

정룡철

개천절기념행사 진행

개천절기념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길송,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들,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단군제가 있었다.

이어 윤정호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외세에 의하여 겪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더이상 참을수도 용납할수도 없다고 하면서 온 겨레가 민족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의지를 총분출시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날뛰는 미국의 전쟁미치광이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세계면전에서 우리 민족의 절멸을 꿰친 늙다리미치광이를 지구상에서 씨도 없이 소탕해버릴 천만군민의 뢰성벽력에 혼비백산한 트럼프와 그 패당이 더욱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우리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트럼프는 대조선제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여전히 혀바닥이 돌아가는대로 《북이 오래가지 못할것이다.》, 《군사적방안은 대단히 파괴적일것이다.》, 《전임자들이 망쳐놓은 북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밸빠진 나발을 련일 꿰쳐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괴뢰들과 함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정례배치를 떠들어대다 못해 우리의 후방을 노린 련합침투훈련을 벌리며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가소롭게 놀아대고있다.

심지어 미국회를 발동하여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또다시 5년간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조작놀음까지 벌려대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더러운 입으로 미치광이망발을 꿰쳐대다 못해 마구 물어뜯겠다고 미쳐날뛰는 정신병자들의 광태는 반미최후결사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더욱 무섭게 격앙시키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도발로 조성된 일촉즉발의 현 사태의 심각성과 닥쳐올 파국적재앙을 감득하지 못하고 지랄발광하는것은 죽어너부러질 때까지 달라질수 없는 승냥이의 본성그대로 미국의 대조선압살야망은 영원히 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발광증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에로 향한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게 된 패배감과 수치감, 무력감의 발로이며 비극적종말의 시각이 분분초초 박두해오고있는데 대한 불안과 공포의 몸부림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야말로 정상적인 사고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미치광이국가, 파괴와 살륙밖에 모르는 깡패집단, 침략과 전쟁에 피눈이 된 극악한 평화의 교살자이라는것을 스스로 온 세상에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것이 본질상 핵전쟁의 불집을 기어코 일으켜 이 땅의 생명체를 모조리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대살륙정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힘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어디서 용솟음치는것인지 알래야 알수 없는 청맹과니들이 썩은 제재막대기따위나 휘두르고 미치광이폭언을 꿰쳐대며 그 누구를 위협해보겠다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추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전세계가 날로 무모해지는 트럼프의 분별없는 망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는 때에 그에 극구 동조하면서 우리의 초강경대응립장을 《위협적언사》로 매도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부채질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범죄행위이며 제 죽을짓을 사서 하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위한 총결사전과 조국통일대전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이미 그 위력을 실물로 확인시켜준 우리의 전략무기들이 태평양너머 죄악의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없이 날려보낼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있는 때에 미국의 전쟁미치광이들이 뒤를 감당할 대책도 없이 허장성세하는것은 저들의 최후종말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괴뢰들 또한 미국의 로망하는 늙다리를 구세주처럼 믿고 삽살개처럼 놀아대다가는 한몽둥이에 얻어맞아 사등뼈가 부러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들까불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이 초강도제재압박소동에 미쳐날뛰면서 그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것은 바다물이 마르기를 바라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짓이며 그러한 지랄발광증은 우리의 일심단결과 자강력에 의해 처참하게 짓뭉개지고야말것이다.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병진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내외전쟁미치광이들의 도발적망동으로 하여 폭발직전에로 치닫는 첨예한 정세는 사상과 제도, 리념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치단결하여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10월 2일
평 양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높아가는 목소리—

지금 세계도처에서 공화국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9월 28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코커가 대조선제재문제와 관련한 상원 금융위원회청문회에서 조선을 핵보유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그는 《나는 조선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본다. 그러한 립장에 상당수가 동의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을 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하는가.》고 현 미행정부것들을 몰아댔다. 그는 《모든 정보기관들은 공개적으로 조선에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조선이 핵미싸일개발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은 핵보유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고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제재와 압박, 외교적고립을 통해 조선의 핵보유정책을 바꾸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미군부내에서도 《조선의 핵, 미싸일은 위협의 〈마지노선〉을 통과하였다. 〈금지선〉을 둘러싼 더이상의 론쟁은 무의미하게 되였다.》는 맥빠진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전세계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종합분석하는 정보기관인 미국방성 방위정보국도 얼마전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에 탑재할수 있는 핵탄두소형화에 성공하였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올브라이트는 《조선이 2020년에 도달할것으로 예상했던 핵무기보유완성을 3년이나 앞당겨 끌냈다. 이만한 핵능력은 5대핵보유국만이 보여주었을뿐 인디아, 파키스탄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실토하였다.

최근 일본방위상도 NHK방송에 출연하여 조선이 핵보유국에 해당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은 핵시험을 반복하여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있다.》, 《6차핵시험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다.》, 《핵무기를 가지고있다고밖에 볼수 없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핵무기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 남조선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북은 핵시설과 핵탄두, 미싸일과 잠수함을 보유하고있는것만큼 〈한〉미가 인정하고싶지 않아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북미사이의 전략적불신을 해소하는것이 현재의 〈강대강〉대치를 해소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북에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북의 핵보유국인정은 미국내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고있는 실정이다.》, 《미국도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궤도에 진입한것을 시인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반미초강경의지를 누구도 꺾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북이 여러 계기들에 《도발을 감행》할수 있다고 떠들어대며 동족대결소동을 계속 일으키고있다.

그러면서 《집중적인 정밀감시》와 《대응태세 유지》를 운운하는 한편 《비상대기근무제》를 실시하고 군부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도발》설로 헐뜯으며 《대응태세》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또 하나의 악랄한 반공화국도발이다.

공화국은 이미 조선반도의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남조선당국의 어리석고 무분별한 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주권행사와 관련한 변함없는 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반공화국압박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안팎으로 어지러운 대결의 광풍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을 공화국에 뒤집어씌우고 저들의 동족대결망동을 합리화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에 맞서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은 그 누구에 대한 《도발》과 《위협》이 아니라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행사이다. 더우기 적대세력들이 《참수작전》이니, 《완전파괴》니 하며 공화국에 최대의 위협을 가해오고있는 지금 그런 잡소리들이 다시는 울려나오지 못하게 국가핵무력완성에 박차를 가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것이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고 의지이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도발》로 매도하고 제재와 위협으로 놀래우려고 해도 정의의 반미대결전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고 최후승리를 떨치려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반미초강경의지를 조금도 꺾을수 없다.

지금 미국과 늙다리미치광이인 트럼프에 대한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복수심은 하늘을 찌를듯 하다. 《완전파괴》 넉두리를 꿰쳐댄 불망나니를 단호히 불로 다스리고 조선민족의 미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겠다는것이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결심이다.

남조선당국은 뒤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도발》타령을 늘어놓고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미쳐날뛰는것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길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9월 28일 대전시청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민족공조를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트럼프가 자국의 리익에 피눈이 되여 본토가 아니라면 어디에서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는 전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단죄하였다.

민중의 리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리익만 강요하는것이 무슨 《동맹》인가고 하면서 그들은 초불민심의 요구는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이 아니라 민중의 생명을 지키는 평화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으로 남북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인류의 불행을 초래할 핵전쟁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 신앙과 사회적지위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길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조미사이의 대결과 군사행동은 실전으로 이어질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은 북의 핵을 억제할수도, 북을 파괴할수도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북의 핵무력만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것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회견문은 주장하였다.

트럼프가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예방전쟁》을 운운하는가 하면 북에 대한 《완전파괴》를 공언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망언을 일삼는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회견문은 만일 트럼프가 이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고 남조선을 행각하는 경우 남조선미국 《동맹》을 거부하는 민중의 거센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쟁과 《싸드》를 반대하며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본사기자

어리석은 개꿈을 꾸다가는…

남조선당국이 도발적인 《북인권소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최근 남조선통일부는 그 무슨 《북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르는 《2017년도 집행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2017년도 집행계획》에는 《북주민들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밑에 수행해야 할 7가지 《력점추진과제》가 반영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권외교》추진, 《북인권결의채택 및 리행관련협력》추진, 《북인권문제》공론화, 해외에 체류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 및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외교적노력, 《북인권재단 출범》, 《북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조사와 기록 및 보관 등 반공화국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고 모욕이며 용납 못할 체제대결망동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북완전파괴》와 같은 트럼프의 미치광이망발과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도발광기로 하여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무겁게 드리워져있다.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도 핵전쟁으로 치달을수 있다는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정세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대신 미국의 개로 전락되여 핵전쟁도발과 제재책동에 편승하다 못해 《인권》모략소동까지 벌림으로써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다.

리명박, 박근혜 《정권》시기에 감행된 《북인권》모략소동 등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사상최악에 이르고 반목과 불신의 장벽만 더욱 높아졌다는것을 현 남조선당국이 모를리 없다. 이런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오물통에 처박힌 《북인권》모략소동에 계속 매달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추악하고 역스러운 추태인가.

남조선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 그리고 각계층 인민들이 《현 〈정부〉는 구태보수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어제는 보수세력에게 질질 밀리여 〈국회〉에서 〈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더니 오늘날에는 제법 극우보수의 챙챙한 목소리를 내고있다.》고 단죄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집권세력이야말로 동족대결정책과 체제대결에 미쳐날뛴 리명박, 박근혜패당과 조금도 다를바없는 대결광신자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남을 걸고들기 전에 제 얼굴에 묻은 감탕이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의 핵전쟁피물인 《싸드》의 배치를 막아나선 의로운 주민들을 수천명의 경찰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가 하면 군부의 상층인물들이 사병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등 끔찍한 인권유린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폭로되여 세상을 경악시키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자들이 《대화》의 문을 두드려대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공화국은 이미전에 존엄높은 북의 체제를 감히 헐뜯으며 《인권》모략소동에 매여달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활짝 꽃펴나고있는 공화국을 어째보려는 어리석은 개꿈을 꾸다가는 날벼락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식민지고용군의 무모한 객기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날뛴다고 했다.

9월 28일 남조선당국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69주년 기념식》을 벌려놓고 부린 반공화국대결추태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날 남조선집권자는 《기념사》라는것을 통해 당면한 목표는 북의 《도발》을 막고 핵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한치의 흔들림없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단합된 공조》에 대해 떠들면서 그 무슨 《도발》에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것이라고 흰소리를 쳤다. 《현무》, 《타우르스》, 《에이태킴스》, 《PAC—2》, 《M—SAM》 등 미싸일들과 수송함 《독도》호, 잠수함 《김좌진》호와 같은 북침전쟁에 리용할 장비들을 진렬해놓고 벌린 이날의 대결판에서 남조선당국은 집단강하훈련,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하는 련합고공강하시범훈련, 공군전투기들이 진행하는 공중기동시범훈련 등을 벌리면서 극도의 동족대결광기를 부리였다. 지금까지 륙해공군사령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대의 종합훈련장에서 진행하던 《국군의 날》기념식을 관례를 벗어나 《천안》호사건 등과 련관되여있는 반공화국대결장소인 2함대사령부에서 진행한것은 그만큼 그들의 동족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의 극심한 대결광기는 세계적인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지위에 오른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하여 벌린 한갓 객기에 불과하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날이 갈수록 포악무도해지는 미국의 핵공갈과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대처하여 고도로 강화발전된 핵공격능력을 련이어 세계앞에 과시하였다. 지난 7월에 두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시험발사, 8월말에 있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발사훈련, 9월초에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 등 날로 비약적으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에 놀란 현 미행정부도 증대되는 불안과 공포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안절부절하는 형편이다.

상전도 공화국의 위력앞에 전전긍긍하고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위협》과 《도발》을 떠들며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린것은 식민지고용군의 가련하고 무맥한 처지를 가리우고 군사적 허세로 내부의 안보위기, 전쟁공포증을 눅잦혀보려는 가소로운 추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막강한 전력을 키워온 공화국군대는 사실상 상전의 지시없으면 한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식민지고용군을 들판의 허수아비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허장성세하며 벌리는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대결소동이 그야말로 맨발로 바위차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절하고 빰맞는다

절하고빰맞는다

남조선당국이 《〈한〉미동맹》강화와 《〈한〉일관계회복》에 대해 목이 쉬도록 떠들고있지만 오히려 차례지는것은 상전들의 랭대와 압력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외세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해가는것으로 하여 온갖 치욕을 뒤집어쓰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유엔무대에서 한 주권국가의 《완전파괴》를 뇌까린 트럼프의 망언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늙다리깡패의 오만무례한 폭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도처에서 강력한 비난과 항의가 일어나고있는 속에 남조선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고 하였지만 미국은 그에는 개의치 않는다는듯이 예고없이 단독으로 무모한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을 당혹케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인도주의적지원》을 결정하고 북남군사회담복원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미국은 《대북압박》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철회하라고 내놓고 압박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 문제에서도 미국은 협정 절하고 빰맞는 천하등신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남조선당국일것이다.

남조선당국이 《〈한〉미동맹》강화와 《〈한〉일관계회복》에 대해 목이 쉬도록 떠들고있지만 오히려 차례지는것은 상전들의 랭대와 압력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외세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해가는것으로 하여 온갖 치욕을 뒤집어쓰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유엔무대에서 한 주권국가의 《완전파괴》를 뇌까린 트럼프의 망언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늙다리깡패의 오만무례한 폭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도처에서 강력한 비난과 항의가 일어나고있는 속에 남조선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고 하였지만 미국은 그에는 개의치 않는다는듯이 예고없이 단독으로 무모한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을 당혹케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인도주의적지원》을 결정하고 북남군사회담복원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미국은 《대북압박》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철회하라고 내놓고 압박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 문제에서도 미국은 협정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가 아닐수 없다.

이런것을 두고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하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이 미국상전에게 발라맞추며 《동맹강화》를 추구해왔지만 미국은 언제 한번 남조선을 동맹자로 대해준적이 없다.

미국의 눈에는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이 자국의 탐욕적인 리익실현을 위해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한갓 식민지노복, 북침전쟁수행에 내몰기 좋은 돌격대, 총알받이로 보일뿐이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목숨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 트럼프가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것이다.》라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뱉으며 갖은 전쟁광기를 부려대고있는것도 남조선인민들이 페기까지 떠들면서 먹이로 개를 길들이는 주인마냥 남조선당국을 몰아대고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조기반환문제를 꺼내는 남조선당국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달갑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고있다.

그야말로 남조선을 한갓 저들의 주구,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가 아닐수 없다.

이런것을 두고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하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이 미국상전에게 발라맞추며 《동맹강화》를 추구해왔지만 미국은 언제 한번 남조선을 동맹자로 대해준적이 없다.

미국의 눈에는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이 자국의 탐욕적인 리익실현을 위해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한갓 식민지노복, 북침전쟁수행에 내몰기 좋은 돌격대, 총알받이로 보일뿐이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목숨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 트럼프가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것이다.》라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뱉으며 갖은 전쟁광기를 부려대고있는것도 남조선인민들이 있는것인가.

오늘 외세의존정책으로 수치를 당하는 남조선당국의 가긍한 처지는 단지 미국과의 관계에서뿐이 아니다.

일본은 자국언론들을 통해 《트럼프가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한국〉을 거지같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대북지원결정에 화를 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등의 비난보도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남조선당국을 자극하고있는 등 남조선일본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최근에도 일본은 남조선당국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추모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을 채택한것과 관련해서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나서며 로골적으로 압박하고있다.

이것은 과거범죄를 합리화하며 오만무례하게 날뛰는 일본의 전횡을 묵인하고 강하게 대응할 대신 《〈한〉일협력》과 《미래지향적관계》를 운운하며 관계개선을 구걸한 남조선당국의 굴욕적인 대일저자세가 낳은 결과이다.

남조선당국이 처한 가긍한 처지는 자주권이 없는 식민지하수인들에게 차례진 응당한 귀결이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매국노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외세의존과 굴종에 물젖으면 머저리가 되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릴수록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더욱 첨예해지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만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악폐들중에서도 먼저 청산해야 할것이 친미사대굴종과 외세의존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거기에서 벗어날것을 강력하게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의존의 병든 눈으로가 아니라 초불민심의 밝은 눈으로 외세의 간특한 침략적정체를 바로 투시해보아야 하며 정신을 차리고 민족을 욕되게 하는 굴욕적인 대미, 대일추종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사기자 리철민

화약더미우에서 불장난한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공화국의 《핵, 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순환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지난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에 참가한 남조선집권자는 트럼프와 《회담》을 벌려놓고 미전략무기의 조선반도순환배치확대에 합의하였다. 얼마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실장이 남조선집권자와 여야 4당 대표사이의 《만찬회동》때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주변에 순환배치하는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르면 올해 년말부터 시작될것》이라고 공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순환배치확대》를 모의하였다.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과 빈번한 미핵전략자산들의 출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이런 속에서 강행되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순환배치확대놀음은 정세를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트럼프가 줴친 《완전파괴》와 《절멸》이라는 미치광이폭언이 군사적도박에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고 떠들면서도 행동으로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자살망동짓을 하고있다.

침략자에게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며 핵재앙단지를 끌어들이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살구멍, 죽을 구멍도 가려볼줄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 분명하다.

태평양건너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둔 공화국의 무력앞에 조선반도에 기여든 미전략자산들은 1차적피멸대상으로 될것이며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그 결불만 맞고서도 전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공화국의 군대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핵화약고우에서 벌리는 무모한 불장난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해 숙고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시

올가미

김영일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
그 문서장이 나온지도 어언 60여년
세상이 다 안다 그것은
침략과 예속의 상징
식민지노복의 수치스런 멍에라는것을

《호상방위》라는 간판을 내건
그것은 제 땅을 통채로 내맡긴
굴종의 문서
미국의 파수병이라는 용병의 락인
60여년 그 기나긴 세월은 말해주고있다
불행과 고통 치욕과 화근을

그 《조약》이 준게 무엇이냐
침략자가 몰아오는 전쟁의 불구름
오늘도 떠도는 매캐한 화약내 아니더냐
날강도의 전횡에 짓눌려 사는
남녘겨레의 가슴에 스민 피의 울분
아니더냐

정녕 말해보자
그 《호상방위조약》은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해치는 《조약》
이더냐
야수가 활개치는 제 땅아닌 제 땅에서
슬픈 운명들이 짊어진 식민지노복의
굴레

그 불평등한 《조약》의 방패아래
더욱더 기승부리는 미국의 전횡
《북완전파괴》나발 떠들어대는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의 광기와
더불어
극도의 한계점에 이르고있거니

가련하다 이 예속의 동아줄
명줄처럼 부여잡은 남조선당국자들
어떤 비참한 운명 차례질줄 모르고
눈먼 송아지 워낭소리 따라가듯
상전의 불장난에 뛰여만드니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하리
매국과 굴종에 찌들은 추악한 무리들
똑똑히 알라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목줄 조이는 올가미라는
것을

만평

전쟁부나비

초불민심을 뒤엎으려고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날을 따라 더욱 격렬해지고있는 적폐청산투쟁으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리명박, 박근혜잔당들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보수세력의 결집에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9월 27일 보수야당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파》의원들이 《만찬모임》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보수대통합》을 론의하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원 9명과 《바른정당》의원 4명 등 모두 13명이 참가한 이 먹자판에서 이들은 《보수가 살길은 통합뿐이다.》, 《통합하지 않고서는 문재인의 독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 《통합파는 정신을 차리고 뭉쳐야 한다.》고 하면서 《바른정당》이 새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11월 13일)전으로 《보수우파통합추진위원회》를 내올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래년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는 해보나마나라고 하면서 《당대당통합이든 개별당원들의 입당방식이든 올해중에 무조건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열을 올리고있다. 《바른정당》파의 통합을 다그치기 위한 놀음의 한 고리로 《자유한국당》은 저들의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을 총사퇴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에서부터 통합바람을 일으켜보려 하고있다.

《바른정당》의 《통합파》들도 《더이상 보수대통합을 미룰수 없다.》, 《보수통합렬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떠들면서 당지도부가 반대하면 집단탈당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는 형편이다.

한편 보수야당세력들은 10월중에 진행되는 《국회국정감사》기간 현 당국의 적폐청산에 대항하여 안보문제와 같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에서 정책공조를 실현하면서 이를 점차 보수대통합으로 이어보려고 꾀하고있다.

남조선땅에 거세차게 타오른 초불민심에 매를 본 까투리마냥 대가리를 틀어박고 찍소리도 내지 못하던 보수야당세력들이 다시 날치면서 《통합》의 미명하에 세력규합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남조선 각계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보수야당세력들의 통합놀음은 남조선에 중세기적인 암흑시대를 몰아온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것을 요구하는 초불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며 공공연한 정치쿠데타준비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친미독재의 한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로서 동족대결과 부정부패만을 일삼아온 보수《정권》의 부역자들이다.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사리사욕만 채우던 정치시정배들에 대해 지난해 남녘민심은 초불투쟁으로 파멸을 선고하였다.

이런자들이 지금 야합놀음을 벌리는것은 지리멸렬된 보수떨거지들을 총결집시켜 다음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심의 적폐청산흐름을 멈춰세우고 나아가서는 권력야망을 다시 이루어보려는 비렬한 속심의 발로이다.

남조선에서 보수잔당들의 야합을 수수방관하게 되면 사대매국노들이 다시 활개치고 극우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지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범람하는것은 물론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부추기는 동족대결소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게 될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설맞은 미친개는 더욱 발악하는 법이다.

초불민심을 뒤엎으려고 비렬한 야합놀음을 벌리는 보수잔당들을 남녘겨레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앞뒤가 맞지 않는 얼빠진 궤변

남조선당국이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에 대해 또다시 떠들어대고있다.

집권이후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을 줄곧 《대북정책》방향으로 내들었던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9월초에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했을 때에는 《지금은 북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귀간지러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얼마전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공조로 북을 압박하되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아야 한다.》고 력설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대변인 등을 내세워 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해왔다.》, 《제재압박과 함께 대화도 추진하고있다.》,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해서도 남북군사회담제의는 유효하다.》고 희떱게 떠들어대게 하였다. 집권자의 뒤를 따라 통일부 차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도 《대북제재와 압박속에서도 최소한의 대화통로는 유지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대화, 협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을 고아대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제아무리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놀아대도 그 기만적인 속심은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북비핵화를 위한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은 지구상의 절대병기인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달라진 현실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대결병자들의 가소롭고 어리석은 나발일뿐이다.

제재는 곧 대결이고 적대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압박에 매달리면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떠벌이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얼빠진 궤변이며 오히려 대화를 부정하고 대화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핵무장해제를 노린 대화와 접촉을 추구하는것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줴쳐대는 트럼프와 같은 미치광이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면서 이전 보수역적패당들과 다를바없는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를 운운하는것자체가 역스러운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에 끌려다니며 황당한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나발을 불어댈것이 아니라 트럼프패거리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반대배격하여야 하며 동족에 대한 야만적인 제재에 가담하는 반역적망동을 걷어치우고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야 마땅할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

지금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개성공업지구운영에 대해 횡설수설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북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19개의 공장을 은밀하게 가동하고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공업지구 공장들을 저들의 《승인》이 없이 돌리면서 《주로 외국에서 주문한 임가공제품을 생산하고있다.》느니, 《불법무법》이라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개성공업지구운영을 《불법비법》으로 여론화하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반공화국제재압박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개성공업지구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공화국의 한없는 민족애와 동포애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공화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이 그토록 소중했기에 남조선의 기업가들의 요청에 따라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연지역을 남측에 통채로 내주었었다. 첨예한 군사접경지대의 거대한 구역을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내주었을뿐아니라 여러가지 유리한 기업경영조건들도 보장해주었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는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 6.15의 옥동자로 불리워왔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한결같이 평해온것처럼 개성공업지구는 문자그대로 《평화의 보루》, 《남북관계의 마지막보루》였다.

그런데 《치마두른 대결광녀》인 박근혜는 북남관계를 완전도륙내며 이 6.15의 옥동자마저 여지없이 란도질하였다.

공화국은 박근혜역도가 미국과 작당하여 개성공업지구를 깨버렸을 때 공업지구에 있는 남측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하며 그것을 북이 관리운영하게 된다는데 대해 이미 세상에 선포하였다.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북이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바가 아니다.

북의 개성공업지구운영을 두고 허튼 나발을 불어대는것은 마치도 공화국이 못할 일을 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흉측한 수작질이다.

공화국의 근로자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는지 눈이 뜸자리가 아니라면 똑똑히 보일것이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떠벌임은 그 어떤 제재압박에도 끄떡없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위용에 질겁한자들의 아츠러운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제아무리 짖어대며 제재압살의 도수를 높여보려고 악을 써대도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것이며 적대세력들이 얻을것은 쥐뿔도 없을것이다.

리어금

트럼프가 도달하게 될 종착점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이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닉슨의 미치광이전략 따라가는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공화국에 대한 전쟁폭언들을 마구 내뱉으며 미치광이처럼 놀아대고있는 트럼프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최대의 압박과 군사적위협으로 함축된 력대 미국집권자들의 《미치광이전략》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벌려놓군 하였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련이은 북의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로 미처 정신차릴 새 없이 두들겨맞은 트럼프가 전쟁폭언과 망발을 늘어놓은것은 아이젠하워나 닉슨의 《미치광이전략》을 련상케 하고있다고 조소하였다.

글은 트럼프가 대조선군사적선택을 운운하며 중국을 압박하는것은 승산없는 웰남전쟁을 《영예롭게 종결》하기 위해 핵무기사용을 떠들며 쏘련을 위협하였던 닉슨의 《미치광이전략》을 그대로 옮겨베낀것이며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 등의 폭언을 늘어놓는것은 닉슨이 1969년 핵무기전문가들을 동북아시아에 파견하고 미군의 핵타격수단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부웰남을 위협하였던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주변에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와 같은 핵타격수단들을 수시로 투입하는것은 웰남전쟁때 전략핵폭탄을 만재한 제92전략항공비행단 소속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18대를 쏘련군의 방공레이다망이 포착할수 있는 북극해 상공에서 장시간 비행하도록 했던것과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다만 닉슨과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서 차이가 나는것은 닉슨이 북부웰남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기뢰투하작전으로 해상봉쇄를 실시했다면 트럼프는 북의 보복공격이 두려워 선제타격에는 나서지 못하고 고강도경제제재를 하는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매일 잡소리나 늘어놓는 트럼프의 저급한 지적능력으로는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북핵문제를 풀어낼수 있는 전략적사고를 할수 없다, 폭언과 망언으로 상대방을 위협해보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광기표출현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글은 조미핵대결로 벼랑끝에 선 트럼프의 처지는 1970년 웰남전쟁을 종식시키느냐 남부웰남의 안보를 지켜주느냐 하는 량자택일의 운명에 처했던 닉슨의 처지와 꼭같다고 하였다.

《력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라고 하면서 글은 패전에 따른 완전철군과 동맹포기를 가져왔던 닉슨의 《미치광이전략》을 답습하고있는 트럼프가 도달하게 될 종착점도 조미핵대결패배에 따른 미군철수와 동맹포기로 귀결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글은 트럼프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치광이전략》을 또다시 꺼내든것자체가 트럼프의 비극인 동시에 미국의 비극이라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살창안에 든 쥐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시기에 감행된 정치공작사건들의 내막이 련속 드러나 사회내부가 법석 끓고있다. 얼마전에는 리명박패당이 정보원과 군싸이버사령부에 이어 기무사령부까지 동원하여 대글공작을 벌린것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빚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리명박집권시기 남조선군 기무사령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수백명규모의 대글부대를 만들어 여론조작활동을 벌리면서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촛불투쟁과 《천안》호침몰사건, 룡산철거민학살사건 등 주요계기때마다 인터네트에 리명박《정부》에 대한 지지글들을 대대적으로 올리였다고 한다. 한편 정보원으로부터 진보적인 정치인, 예술인요시찰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비난글들을 류포시키기도 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2017년말까지 리명박집권시기 남조선군 싸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정치공작사건을 파헤치려 하고있다.

문제는 리명박패당과 보수야당들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죄를 부인하고있는것이다.

리명박측근들은 현《정부》가 보수를 궤멸시키려 하고있다,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사안별로 직접 대응하겠다고 하며 생억지를 쓰고있다. 급해맞은 리명박자신도 인터네트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퇴행적시도는 국익을 해칠뿐이다.》, 《때가 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것이다.》고 하면서 죄행을 부인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다.

하지만 리명박패당이 집권시기 감행한 불법정치공작사건의 진상이 깨깨 드러나고 그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공개된 지금에 와서 아무리 생떼를 써도 죄악의 흔적을 덮어버릴수는 없는것이다.

죄지은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가 누구이든 죄악에 따른 징벌은 피할수 없는 법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리명박〈정권〉이 감행한 야당사찰, 관권선거, 언론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리명박〈정권〉은 사찰공화국, 공작공화국이다.》고 하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지금까지 드러난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적폐청산은 시작이라고 하면서 10월 1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기간 리명박《정권》이 감행한 정치개입범죄뿐아니라 《4대강정비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분야의 부정부패도 동시에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리명박은 만고죄악을 자수하라, 리명박을 구치소로 보내라, 쥐를 잡아없애자, 리명박을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는 속에 리명박역도가 민심의 심판대우에 오를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리명박은 말그대로 살창안에 든 쥐신세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 《백두산8경》 (1) ◎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제나름으로 자랑하는 명산, 성산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의 백두산처럼 웅장하고 천하절경으로 가득차있으며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민족의 성산은 없다.
백두산이 있어 강대한 우리 조국의 찬란한 래일이 있다는 진리를 천추만대에 새겨주는 《백두산8경》은 정녕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는 자랑이고 천하제일경이다.

백두산의 해돋이

천하제일명산 백두산의 일만경치가운데서도 제일먼저 손꼽히는것은 백두산의 해돋이이다.

이른새벽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 백두산마루에 올라 캄캄한 어둠을 밀어내며 눈부시게 떠올라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를 보는것은 참으로 장쾌함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라고 할수 있다.

예로부터 금강산의 비로봉에서 보는 동해의 해돋이를 절승이라고 일러왔다.

비로봉에서 동해의 해돋이를 볼 때 제일 빨리 시작되는 시간은 새벽 4시 33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마루에서 해돋이를 볼 때 제일 빨리 시작되는 시간은 새벽 4시 23분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시작되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 장쾌함과 빛발의 찬란함에 있어서 어디에 비길수 없는 절경중의 절경이다.

아직은 일만산줄기들이 어둠에 잠겨있을 때 장엄한 태양이 지평선끝에서 바늘끝같은 빨간 점으로 생겨오르다가 그것이 점차 커지면서 천리수해를 물들이며 백두령봉을 서서히 비친다. 그러면 구름바다를 뚫고 지평선너머에서 태양이 솟아올라 조종의 산 백두산을 붉게 물들인다. 이때 성산의 계곡들과 바위들은 물론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백두산에 오른 사람들까지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여진다.

주체87(1998)년 10월 몸소 새벽어둠을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여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의 아침이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오듯이 주체혁명위업도 여기 백두산에서 시작되였다고, 나는 여기에 올라 저 붉게 타오르는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더 굳게 다지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백두산해돋이를 사랑한다고, 백두산의 해돋이를 보니 혁명의 승리가 보이는것만 같다고, 혁명의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가자면 우리의 신념은 백두산해돋이처럼 붉고 강렬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참으로 백두산의 해돋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천출위인상을 길이 전하며 천만군민에게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해갈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는 조선의 해돋이, 세계제일의 해돋이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연구사 박사
최 근 섭

룡악산의 세그루 은행나무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우는 룡악산 법운암 앞뜰에는 세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세개의 원줄기가 마치도 한뿌리에서 솟은것처럼 보이는 이 은행나무들에 대한 오랜 이야기가 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의 침입으로 팔도강산이 전란에 잠겼던 그때 이곳 룡악산 법운암으로 서산(묘향산)의 보현사 스님인 휴정(서산대사)의 격문이 날아들었다.

당시 72살 고령의 몸으로 손에 칼을 잡고 전국의 스님들을 왜적격멸에로 불러일으킨 서산대사 휴정의 격문은 이곳 법운암 스님들의 마음에도 조국수호의 피를 끓이게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남달리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높았던 영정과 심근, 우교는 남먼저 왜적격멸의 성전에 궐기해나섰다.

이튿날 절을 떠나기에 앞서 불상앞에 룡악산샘물을 정히 떠놓고 나서 《태를 묻은 소중한 이 땅을 짓밟고 무고한 중생들을 마구 살륙하는 저 섬오랑캐들의 간악무도에 의분을 참을길 없어 살생을 금하라는 불가의 계률을 어기고 목탁과 념주를 쥐였던 이 손에 창칼을 잡고 나섰으니 부처님은 우리를 너그러이 살펴주옵소서. 기어이 저 아수라 패륜악마들을 한두름에 꿰여서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고 돌아오겠나이다.》라고 두손모아 절하고 난 이들은 이어서 절뜨락밑 샘물터앞 공지에 은행씨앗 한알씩을 정히 심었다.

설혹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태를 묻은 이 땅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 자기들의 마음을 정든 룡악산에, 1 000여년을 산다는 은행나무에 고이 간직해두고싶어서였다.

이들은 얼마후 평양성탈환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승병부대 대오의 맨앞장에서 처음에는 영정이, 다음에는 심근, 마지막으로 우교가 부대지휘기를 끌끌내 을밀봉마루에 꽂고서야 눈을 감은 소식이 룡악산에도 전해졌다.

놀랍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부터 세그루의 은행나무들은 자라면서 서로 가까이로 조금씩 죄여들더니 얼마 안가서 아예 한뿌리에서 돋은 나무들처럼 합쳐지고말았다.

룡악산을 찾는 사람들은 이 세그루 은행나무앞에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예나 지금이나 나서자란 이 땅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누구나 한마음, 한모습이여야 한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말한다.

본사기자

태권도의 위력경기

태권도의 위력경기는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손이나 발의 각이한 부위로 송판을 격파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가르는 경기이다.

위력경기는 앞주먹지르기, 손칼때리기, 옆차지르기, 돌려차기, 반대돌려차기, 앞팔굽때리기 등의 세부종목들을 성인, 로장 그리고 남녀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한다.

청소년경기에서는 위력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위력경기는 남녀개인경기와 단체경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개인위력경기는 몸무게급에 관계없이 한 단체에서 한명씩 참가하여 매 세부종목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단체위력경기는 한 단체에서 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매 선수가 세부종목을 한개씩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매 세부종목에서 가장 많은 수의 송판을 신청한 선수나 단체들 순서로 경기를 진행하며 채점은 격파된 송판 1장당 2점, 송판에 금이 갔거나 구부러졌을 때에는 1점을 준다.

순위는 5개의 세부종목경기점수를 합하여 결정한다.

본사기자

암예방과 운동

운동부족은 여러가지 악성종양의 원인으로 되며 어느 정도 높은 강도의 꾸준한 운동만이 암을 예방할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암발생의 위험성을 70%까지 낮출수 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 1시간정도씩 한주일에 3번 운동하면 유선암발병률을 30%, 전위선암과 고환암발생률을 60~70% 줄일수 있다고 한다.

운동을 많이 하면 호흡기계통의 종양발병률을 20~60% 줄일수 있다고 한다.

운동은 심장혈관계통의 질병에도 매우 좋은데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근경색을 30% 줄일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정방산의 성불사

사화

병풍에 닮긴 조소 (7)

글 신 창 섭, 그림 박 봉 혁

《글귀가 잡혔나보군. 여봐라!》

한명회의 분부에 이어 붓과 벼루, 먹, 연적의 문방사우가 그쯘히 갖추어진 문방대가 들어왔다.

그는 시습에게 제일 좋은 황모필을 골라주고 하인을 시켜 먹을 갈게 하였다.

연적에 담긴 참먹의 까만빛은 기름기가 찰찰 도는데 금빛붓대에 소담히 내돋은 황모필의 보드라운 털이 연적에 비껴 얼른거렸다. 먹에 닿을가말가 하는 붓끝을 긴장하게 바라보는 한명회는 물론이고 곁에 서있는 하인들까지 마른침을 꼴깍꼴깍 삼키고있었다.

병풍속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잠간 얼굴을 찡그렸다가 다시 미간을 펴며 큰 심호흡을 하는 시습의 자세는 마치 그 어떤 숙적과 마주서고있는 듯싶었다.

《자, 어서.》

한명회가 이렇게 재촉하자 시습은 붓끝을 먹물에 잠그었다가 이어 병풍의 그림에 붓을 대였다.

붓끝이 조화를 부리며 나는듯이 요리조리 옮겨지는데 보는 사람들은 긴장감에 까딱 움직이지를 않고 그의 신비한 붓끝만을 바라볼뿐 시구절에는 관심밖인듯싶었다.

시습이 붓끝을 떼는 순간 한명회는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야!》 하고 찬탄의 소리들을 내질렀다.

《과시 명필이요!》

《정말 그렇소이다.》

한명회는 연방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그를 칭찬하기에 말을 아끼지 않았다.

《붓글씨는 날아오르는 봉황이요 글귀 또한 명시로다. 하하!》

그는 소리를 내여 시를 읊어내려갔다.

위천강 낚시터에
날비 슬슬 뿌리는데
낚시대 벗을 삼고
세월을 잊었더니
어이타 늘그막에
새매같은 장수되여
백이숙제 고사리 꺾다
굶어죽게 하였더뇨

시읊기를 마친 그는 또 한번 시습을 칭찬하였다.

《과시 스님은 붓글씨에 문장까지 겸비한 재사이시오. 그 장삼이 정말로 아깝소그려.》

그러나 시습은 한명회가 한껏 추어올리는 말에도 그저 덤덤할뿐이였다.

시습의 글은 세조의 왕권찬탈행위에서 주동이 되여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린 한명회의 비행한 행위를 옛날 주나라 공의 행위를 빌어 자기를 의 고사를 인용하여 조소한것이였다.

강태공은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서 큰 공을 세워 재상이 되였는데 이때 은나라사람들인 백이와 숙제는 나라가 멸망한것을 한탄하며 지조를 지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조소한것이라는것도 가려볼수 없었기에 무턱대고 그저 좋아할뿐이였다.

《마음에 드실런지?》

시습의 물음에 한명회는 그게 무슨 말인가고 하며 손을 가로 흔들었다.

《마음에 들다마다. 내 평생 스님같은 시재는 처음 보게 되오. 여봐라. 주안상을 내오너라.》

내속을 알리 없는 그는 시습을 귀한 손님으로 룡숭하게 대접하였다. 주안상을 물리고난 시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승은 그만 물러나 꺾어먹다가 나중에 굶어죽었다고 한다.

권모술수와 악독한 책략으로 대감은 되였을망정 머리에 글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한명회는 이 글이 강태고?)

시습이 허리를 굽히고 합장을 하자 한껏 취흥이 도도해진 한명회는 나중에는 그의 거동까지도 칭찬하기에 이르렀다.

《그 언행 또한 신선 한 가질세, 허허.》

그러건말건 시습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치며 유유히 대문을 나섰다.

(흠, 그 량반 병풍값을 톡톡히 받는군.)

한명회의 병풍소문은 이후로 날개를 달고 여기저기로 퍼졌다.

한배를 탄 같은 족속들이였지만 남이 잘되기를 달가와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한명회와 더불어 수양대군의 량쪽팔이 되여 온갖 악행을 다한 권람이였다.

한명회의 병풍소문이 귀에 날아들자 권람은 속이 뒤틀렸다.

그에 대한 소문이 너무 지나치게 나는것이 어쩐지 권람의 비위에 거슬렸던것이다.

(대관절 어떤 물건짝이길래 그리 소문이 자자한

그러면서도 선뜻 한명회의 집에 발길을 하지 못하는것은 권람 자기가 찾아가면 가뜩이나 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가 더우쭐렁거릴것이 눈에 시리였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권람은 병풍에 대한 호기심은 버릴수가 없어 어느 하루 머리도 쉬울겸 겸사하여 그의 집을 찾아갔다.

《허, 오늘은 어찌된 일이시오? 내 집엘 다 찾아오니 말이요.》

반가와하는듯싶으면서도 내속이 겉으로 드러나보이는 한명회의 인사치레는 어찌보면 권람을 낮보는 태도였다.

그것을 모를리 없건만 권람은 천연스레 대꾸하였다.

《허, 그럼 내가 오지 못할델 왔단 말이시오? 대감께 희한한 병풍이 있다는 소문이 하두 자자하길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구 겸사해서 들렸소이다.》

《아하, 그렇소. 어서 들어오시우.》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